

# 녕봉련, 35년간 멈추지 않은 모태주 사랑과 사회적 책임



길림성술문화박물관에 들어서면 박물관 곳곳에서 풍겨져 나오는 술향기가 사람을 매혹시키며 마치 새로운 술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이곳에는 세계 각지의 명주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모태(茅台)주와 같은 보물도 있다. 이 박물관의 창립자가 바로 백산방대그룹의 리사장 겸 당위서기인 녍봉련(宁风莲)이다.

녕봉련과 모태주의 이야기는 1990년대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백산시당주점(糖酒站, 지금의 백산방대그룹)은 경영난에 빠져 연간 적자액이 천만원을 넘었다. 1990년, 혼강시(浑江市) 연합경영회사에서 근무중이던 녍봉련이 백산시당주점 총경리로 임명되었다. 그해 35세의 젊은 녍봉련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현황에 직면하여 결연히 중임을 떠맡았다.

“어렸을 때부터 중국 술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주류 사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런 감정이 더욱 강렬해졌다.”고 녍봉련은 회상했다. 그는 기업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회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뜨거운 야망을 품은 녍봉련은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한 령정을 나섰고 국내 22개 현과 시를 다니며 34개의 주류 유통업체 동료를 신배들을 방문했다.

녕봉련은 깊이있고 세밀한 시장 조사 연구를 거쳐 모태주 등 명주를 기업의 주요 경영 제품으로 삼고 기업을 위해 ‘명품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전국의 명주들을 유통하여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한다.’는 발전 방향을 확립했다. 그는 앞장서 종업원들을 이끌며 자금을 모으고 물량을 넓히며 시장을 개척했다. 마침내 백산시당주점은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모태주 등 명주업체들과 합작관계를 맺는 데 성공했고 매출액도 계속 상승했다.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모태주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녍봉련은 항상 성실 경영 원칙을 고수했다.

녕봉련은 “신용은 백산방대그룹의 생명인바 신용 덕분에 백산방대그룹은 독특한 민영기업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녍봉련은 판매하고 있는 모태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 경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했다. 그리고 운송 전체 과정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감독했으며 중도에 물건을 바꿔치기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확보했다. 또한 구매 품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검수하며 입고 등록을 실행했다. 위조 방지 추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모든 술의 출처, 생산과정, 품질 검사 등 단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주류문화의 오랜 연구자이자 전파자인 녍봉련은 1974년부터 다양한 술과 그 뒤에 숨겨진 풍부한 이야기들을 수집해왔다. 중국 술문화를 보다 직관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파하기 위해 녍봉련은 전국 최초의 민영 술문화박물관인 길림성술문화박물관을 설립했다. 면적이 3,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박물관은 세계 각지의 6,000여종의 술을 소장하고 있으며 2012년 8월에 순조롭게 완공되어 대중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모태주 브랜드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구역은 중국의 오랜 양조 역사의 생생한 축소판이자 상징적인 존재이다. 길림성술문화박물관은 모태주와 관련된 많은 역사적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자료와 물건들은 녍봉련의 세심한 보존과 분류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귀중한 역사적 유물로 되어 시대의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2013년 그는 67개 종류, 5,759개 품종의 술을 저장해 기네스 세계기록을 세웠고 이듬해 길림성술문화박물관은 국가 4A급 관광지로 승격되며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으며 그의 꾸준한 노력하에 지금까지 길림

성술문화박물관은 30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들이었다.

“경영에 전념하여 효익을 우선으로 하며 사회에 보답한다”는 것이 백산방대그룹의 발전 취지이다. 사업이 나날이 번창함과 더불어 녍봉련은 시중 사회에 보답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수많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실제 행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복리원은 그가 오래동안 방문하고 위문해왔던 곳이다. 해마다 음력설, 단오, 추석 등 중국 전통 명절이나 로인절, 아동절이 다가오면 그는 그룹의 종업원들과 함께 로인과 아이들을 찾아 축복과 기쁨을 전한다.

향촌 진흥의 길에서 녍봉련은 초심을 잊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향촌 소학교를 지원하고 백산시 혼강구 태안 향소학교에 현대식 교육도구를 전달하는 등 학생들에게 꾸준한 지원을 이어왔다. 백산시 룽도강진 서촌 촌민들을 위해 가로등을 설치하고 연안촌 촌민들을 위해 쓰레기차를 구입해주었으며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해 그들의 생활환경을 뚜렷이 개선시켰다.

녕봉련은 민족단결진보사업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부 월급과 수당을 기부하여 백산방대그룹 민족단결진보교육장학기금을 설립하였고 백산시조선족학교와 장기 협조 기제를 구축하였으며 백산시조선족로인협회에 공익복과 소품, 문예기자재를 기증했다. 녍봉련과 백산방대그룹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의 광범한 찬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단결진보의 모범으로 되었다.

군인 출신인 녍봉련은 35년간 백산방대그룹을 인솔하여 ‘군대를 위문하고 조국에 감사하다’는 애국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면서 나라를 수호하고 국방에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그는 또한 강인함, 정직함, 고상함이라는 군인정신으로 그룹의 모든 종업원을 고무하고 격려했다.

녕봉련의 조직력이 지난 10년 동안 백산방대그룹은 20여차례의 대규모 기부 활동을 진행하여 200여만원의 기부금과 물품을 제공했다. 기업의 35년간의 지속적인 발전은 300여명의 퇴직종업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사회 안정을 수호하고 사회 조화를 촉진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녕봉련은 “시대가 나를 만들었고 모태주가 나를 성공하게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단순히 술만 파는 ‘중간상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역사를 돌아보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아야만 더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며 “이는 일종의 책임이자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유경봉 오건 기자

# 백산시, 금연생활 창도로 문명한 새 기풍 인솔



▲ 금연표지 부착 상황을 검사하고 있는 관련 사업일군

도시 문명 건설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 문명 건설에서 군중들이 주목하는 각종 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고 문명행동 달마다 진행’ 전 성 도시 문명 건설 활동 배치에 따라 1월초부터 백산시는 ‘공공장소 금연의 달’ 주제선전활동을 전개하여 금연과 건강, 조화로울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문명의 새로운 기풍을 선도했다.

흡연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군중들이 과학, 문명, 녹색친환경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양성하고 생활환경의 문명 건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백산시의 각 구, 가두, 사회구역에서는 잇달아 행동에 나서고 다양한 형식으로 상가, 주민구역에 침입하여 ‘공공장소 금연의 달’ 주제선전활동을 전개, 따뜻한 안내, 과학적 설명과 선전책자를 발급하는 등 방식으로 금연의 리념을 선전했다.

도시 문명 건설에서 군중들이 주목하는 각종 문제를 힘써 해결하며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고 문명행동 달마다 진행’ 전 성 도시 문명 건설 활동 배치에 따라 1월초부터 백산시는 ‘공공장소 금연의 달’ 주제선전활동을 전개하여 금연과 건강, 조화로울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문명의 새로운 기풍을 선도했다.

흡연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군중들이 과학, 문명, 녹색친환경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양성하고 생활환경의 문명 건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백산시의 각 구, 가두, 사회구역에서는 잇달아 행동에 나서고 다양한 형식으로 상가, 주민구역에 침입하여 ‘공공장소 금연의 달’ 주제선전활동을 전개, 따뜻한 안내, 과학적 설명과 선전책자를 발급하는 등 방식으로 금연의 리념을 선전했다.

1월 7일, 진행사회구역은 ‘금연사회구역을 함께 건설하고 건강한 생활을 함께 공유하자’ 금연선전활동을 전개했다. 사회구역의 사업일군들은 생활구역의 점포, 상가 등 중점 장소를 찾아 선전자료를 전달하고 금연표지 부착 상황을 살펴보고 상인들에게 금연 안내를 잘할 것을 호소했다. 서원사회구역은 위챗 단체방을 리용하여 금연 지식을 공유하고 담배가 인구에 미치는 위해와 금연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선전 범위를 일층 넓혔다. 신원사회구역에서는 격자원들을 동원하여 선전자료를 발급하는 등 형식을 통해 주민들에게 담배 인체와 환경에 끼치는 위해성을 상세하게 해석해주었다. 민중사회구역에서는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각종 위해를 보급하는 것외에 과학적이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담배를 끊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이와 동시에 각 가두, 사회구역에서는 중점 장소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성남가두 평대사회구역에서는 생활구역 ‘10소(小) 장소’에 깊이 들어가 전면적이고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장소내에 뚜렷한 금연표지가 부착되어있는지, 흡연 현상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고객의 흡연을 만류하고 있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동시에 장소 책임자에게 금연 선전을 잘하고 장소 주제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순찰중에 발견된 문제 레를 들면 상가내에서 흡연하는 현상이 존재하거나 금연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등 문제에 대해 사업일군들은 즉시 상가 책임자와 소통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공공장소 금연의 달” 주제 선전을 통해 백산시 주민들의 담배통제 의식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다음 단계에 각 사회구역에서는 담배통제 사업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모두가 금연 환경을 지지하고 이를 함께 건설하며 공유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전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같은 날, 립강시문명판공실은 흥룡가두 문명사회구역 새시대문명실 / 길림일보

# 연길시민정국, 곤난군중에 따스함 전하



▲ 연길시민정국 부국장 조용(오른쪽) 위문품 전달

2월 8일, 곤난군중들의 기본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민정국은 북산가두 단연사회구역을 찾아 위문지원활동을 펼쳤다. 행사에서 연길시민정국 부국장 조용 일행은 사회구역 곤난군중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상세히 리해했으며 최저생활보장대상, 장애인, 독거로인 등 60가구에 쌀 3,050근과 콩기름

488근을 전달했다. 연길시민정국은 앞으로 사업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문제를 더욱 빨리 발견하고 봉사의 질을 한층 제고하여 군중들의 생활 압력을 제때에 완화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군중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리성복특약기자

# 길림성, 음력설 연휴 안전 형세 전반적으로 량호

최근, 길림성응급관리청에 따르면 음력설 연휴에 우리 성은 생산안전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전 성의 안전생산 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길림성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 길림성응급관리청은 올해 음력설 연휴가 이왕보다 길고 군중들이 축제활동에 참여하는 열정이 높으며 생산경영활동이 중요한 시간대에 진입하고 건설 날씨로 안전 위험이 높아지는 등 특성에 비추어 성당위와 성정부의 ‘위험방지, 안전보장’에 관한 배치 요구를 성실히 관철하고 제반 안전예방사업의 실행을 엄격하고 신속하게 틀어쥐었다.

음력설을 앞두고 길림성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은 관련 부문을 조직하여 음력설 연휴 기간 안전 위험에 대해 착실하게 분석하고 안전예방사

업을 구체적으로 배치했다. 3대 운영사를 통하여 핸드폰 사용자에게 폭죽, 전기사용, 가스사용, 열음강판 등 안전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루게로 6,000여만건 발송하고 라디오, 텔레비존, 신문, 사이트 등 플랫폼을 리용하여 안전 안내를 1,800여회 발표하여 ‘방지가 구조보다 낫다’는 리념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음력설 연휴 기간에 길림성응급관리청은 중요한 시간대 안전예방사업 기제를 가동하고 ‘매일 연구판단, 매일 배치’를 전개했다. 성, 시, 현 3급 응급관리부문은 루게로 967개의 검사봉사팀, 연인원 2,690명을 조직하고 온·오프라인 결합하여 2,674개의 기업에 대해 검사봉사를 제공하고 1,945가지를 정돈하도록 지도했다. 음력설후 업무 및 생산 재개 위험에 대한 통보를 앞당겨 발표하고 신속

히 안전 봉사를 기업에 송달했다. 전성적으로 소방구조팀을 루게로 연인원 4,583명, 소방차를 978대 출동시켰으며 매일 대형 상권, 인원밀집장소 등 중점구역에 116개의 근무소를 설치하여 수시로 응급구조 준비를 했다.

음력설 연휴 기간에 길림성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 길림성응급관리청과 성 직속 25개 주요 부문, 각시(주)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은 중요한 시간대 정보리전동 기제를 구축하여 매일 교통, 관광, 날씨 등 중대 정보를 배치하였으며 가스안전, 소방위험 등을 정돈했다. 조절을 거쳐 16회의 대형 축제 행사가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화재, 인원압사 등 돌발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길림일보

# 연변에서 수차례 동북범 모습 포착!

지난 음력설 연휴 기간인 2월 3일, 차들이 주행하는 도로 가운데 딱하니 버티고 앉아있는 동북범을 한 운전자가 보고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당일 밤 7시경 산길을 걸어가던 호랑이가 CCTV에 포착되는가 하면 하루전인 2월 2일에도 눈밭을 터벅터벅 걸어가던 동북범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 생태환경이 부단히 개선되면서 최근 몇년간 연변지역에서는 동북범과 표범이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다. 한편 관련 부문에서는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구역에 필수로 오래 동안 머물지 말고 호랑이를 만나면 가급적 인차 현장을 떠나며 차문이나 창문을 열지 말고 따라서 사진을 찍거나 먹이를 던지지 않는 등 신변 안전을 지킬 것을 광범한 군중들에게 안내했다.

/연변라지오 TV 넷 연변방송 APP